

대한간호협회 2017년 사업계획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 ...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구축

대한간호협회는 제8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7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회는 2월 22~23일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전국의 간호사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7년 사업계획은 대한간호협회 제8차 장기사업계획(2017~2019년)에 근간을 두고 마련됐다.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정리한다.

◇협회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확립

산하단체 및 산하단체 외 간호분야 정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정책아카데미 소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신 회관 마련을 추진한다. 간호협회 중앙회와 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 직무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임직원 경력 개발을 지원한다.

간호교육 4년 일원화 배서, 의료법 개정 배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도록 및 배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회원관리 시스템을 리뉴얼할 계획이다. KNA 연수원 운영 효율화에 힘쓰기로 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도간호사회 간호정책아카데미 개최를 지원하고, 간호사 정치 참여 확대 활동을 추진한다. 국회, 정부,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책 연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제2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를 진행한다.

◇회원복지 확대 및 홍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로 위탁받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에 힘쓰기로 했다. 회원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무료 법률 및 노

획이다. 온라인 'KNA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하고, 언론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KNA 대학생 활동가를 운영한다.

간호사신문을 매주 발간하고, 인터넷/모바일 간호신문을 운영한다. 간호문학을 공모한다.

간호사 면허신고센터 시스템을 리뉴얼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대한간호학술상을 공모한다.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8종을 출판한다. 간호사 인터넷서점 'RNbook'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구축

통일시대 대비 간호 관련 활동을 추진한다. 통일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남북 간호사 현황, 북한의 간호 업무 및 제도 등 통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기초연구를 할 계획이다. 남북간 건강 지원, 남북 간호사 및 간호학생 지원 등 남북간 지원체계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 간호역사 정립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간호역사 관련 자료 수집 및 복원 활동을 계속한다.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발간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를 발간할 예정이다.

KICN 간호리더십센터를 운영한다. 재외한인간호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계속한다. ICN Congress and CNR 2017 Spain에 참석한다. 아시아 워크숍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정규숙·김숙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주력

간호정책아카데미 개최

건강한 간호조직문화 활성화

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전문간호사 등 간호 관련 법률 개정 활동을 추진한다. 간호 관련 수가 개선 활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제도 개선 활동 등에 주력키로 했다. 간호 관련 법·제도 및 수가 개선 연구, 간호사 수급 개선 연구, 간호 현안 정

무상담,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활성화, 간호실무 업무 개발 및 운영 등에 매진키로 했다.

회원복지물 '넬스라이프'를 운영하고, 올해 신규 출시된 '하나 RNcard' 홍보 및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간호정책 관련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에 힘쓸 계

회원관리 시스템 리뉴얼

한국 간호역사 정립 활동 매진

KNA 대학생 활동가 운영

◇회원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간호사 보수교육 질 관리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KNA에듀센터 시스템을 개선한다. 순회 보수교육 프로그램, 특수분야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간호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한다.

◇건강한 간호조직문화 정립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조직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1면서 계속)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에는 '과독간호사 50년, 그 위대한 여정' 주제로 기념행사 및 특별전시를 통해 개최해 과독간호사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간호교과서가 문화재로 등록됐고, 서울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육이 이뤄졌던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터에 간호표식 1호를 설치했다"면서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한 간호역사뿌리 찾기사업의 결실로 협회는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10월에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간호체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간호연구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호의 통일전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남북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대독)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의료비 경감, 공공 의료 서비스의 확충 등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CT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방문간호를 확대 시행했으며, 늘어가는 노인 요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년 실시한 1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에 우리의 의료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의 건강수준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의 옆을 가장 가까이 지키는 간호사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간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24시간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추세를 연구 중이며, 연구결과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면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류간호사의 의료현장 취업 및 간호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대의원들이 기립한 가운데 일생을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타계한 간호계 영령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을 강기선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장이 낭독했다.

'건의문' 낭독을 통해 △간호 관련 수가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017년 1월부터 발효된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계 법령 정비 △간호법 제정 △신규간호사 사직 방지와 간호사 지속근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방문간호 등 지역별 간호분야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은 서순림 간호협회 제1부회장, 결의문은 김남초 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낭독했다.

올해의 간호인상 수여 장관상·공로패 등 시상

시상식에서는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간호사들에게 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상= 김정희(부산 부민병원 간호이사) 성명선(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처장) 지혜련(동강대 교수) 양순복(전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장) 김복연(정주성모병원 간호부장) 김도숙(전남 보성군 영동보건진료소장) 송미숙(경북 김천신일초등학교 보건교사) 오경환(세브란스병원 간호담담부원장) 손계순(경남 거창군보건소 보건진료 6급) 고민주(경기 성남시 구미초등학교 보건교사)
- ◇올해의 간호인상= 김정란(한국디아코니아 상무이사)
- ◇공로패= 김영경(전 부산시간호사회장) 이강이(전 대전시간호사회장) 조경숙(전 경기도간호사회장) 이미현(전 충남간호사회장)

박연숙(전 충남간호사회장) 정광숙(전 전남간호사회장) 박계화(전 군진간호사회장) 과월희(전 병원간호사회장) 이영(전 보림심시간호사회장) ◇공로패= 박국희(전 울산시간호사회 사무처장) 박영숙(전 전북간호사회 사무처장)

◇장학증서(고시지원)= 김보배(원효법률사무소 변호사) ◇간호정책학술상= 이유리(대상·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박사후과장) 김영수(우수상·계명대 간호대학 석사과정) 한민경(우수상·이화여대 간호대학 박사후과)

◇제28회 대한간호학술상= 조무용 외 2명(우수상·분당제생병원) 박옥경 외 2명(장려상·고대안산병원) 김경진 외 3명(장려상·부산대병원)

◇제37회 간호문학상= 박진숙(소설 당선작·세종시 한마음요양병원) 최은희(소설 작가·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혜선(수기 당선작·국립중앙의료원) 윤혜진(수기 작가·강동경희대병원) 박소영(시 당선작·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박지나(시 작가·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우에진(수필 작가·한서대 간호학과 3학년)

◇직원 근속상= 백찬기(20년 근속·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 백민지(10년 근속·대한간호협회 재무팀 과장)

◇우수 중앙간호봉사단상= 오경현(드림아시아) 허정인(한국소비자원) 송현중(한림병원) 방지은(고대 구로병원) 김인에(건국대병원) 이은정(세브란스병원) 양초아(강원혈액원) 김우영(건국대) 이상렬(경북대) 전민지(유원대) 이은경(유원대) 이은숙(한서대).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대의원들은 테너 김성래의 선창에 따라 대한간호협회 회가를 함께 불렀다.

올해 사업계획 확정 예산안 심의 통과

개회식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임원 및 대의원 319명 중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가 시작됐다. 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변홍사가 배석했다. 일반회원들이 잠깐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먼저 회의를 진행할 의장단을 새로 구성했다. 신입 의장에는 손혜숙 강원도간호사회장, 제1부회장은 신화자 전북간호사회장, 제2부회장은 류말숙 울산시간호사회장이 선출됐다.

대의원들은 2016년도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16년도 감사결과를 양 수, 김미영 감사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어 대의원들은 2016년도 대한간호협회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를 듣고, 이를 통과시켰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의 지난해 사업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22일 대의원총회는 오후 6시에 마무리됐다. 대의원총회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속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8차 장기사업계획안(2017~2019년)을 심의 확정했으며, 2017년도 간호협회 사업계획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장기사업계획은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해 △협회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확립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회원복지 확대 및 홍보체계 강화 △회원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건강한 간호조직문화 정립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구축 △한국 간호역사 정립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7대 목표로 구성됐다.

2017년 주요사업계획은 장기사업계획 7대 목표에 토대를 두고 마련됐다. 올해 주요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간호협회는 올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한다. 간호 관련 법률 및 수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간호 관련 정책연구, 제2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 등에 힘쓰기로 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도간호사회 간호정책아카데미 개최를 지원하고, 간호사 정치참여 확대 활동을 추진한다. 국회, 정부,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로 위탁받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에 주력한다. 회원복지를 위한 사업에 힘쓰고, 간호실무 업무 개발 운영한다. 회원복지물 '넬스라이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올해 신규 출시된 '하나 RNcard' 홍보 및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신 회관 마련을 추진한다. 회원관리 시스템을 리뉴얼할 계획이다. KNA연수원 운영 효율화에 힘쓰기로 했다.

간호정책 관련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SNS 홍보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온라인 'KNA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한다. KNA 대학생 활동가를 운영한다. 간호사신문을 매주 발간하고, 인터넷/모바일 간호신문을 운영한다. 간호문학을 공모한다.

간호사 보수교육 질 관리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KNA에듀센터 시스템을 개선한다.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간호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한다. 간호사 면허신고센터 시스템을 리뉴얼한다. 대한간호학술상을 공모한다.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8종을 출판한다. 간호사 인터넷서점 'RNbook'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구축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통일 관련 기관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북한 간호 관련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기초연구, 남북간 건강 지원, 남북 간호사 및 간호학생 지원 등을 진행한다.

간호역사 관련 자료 수집 및 복원 활동을 계속한다.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발간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를 발간할 예정이다.

KICN 간호리더십센터를 운영한다. 재외한인간호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계속한다. ICN Congress and CNR 2017 Spain에 참석한다.

이 같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신문·출판·KNA연수원운영·교육·넬스라이프운영·ICN서울총회기념사업·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총 301억2628만원 규모로 확정했다. 중앙회 회비는 동결했다.

이어 정관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대의원총회 참석권(제3장 제16조) 조항을 개정해 참석권 부여 대상인 회원의 자격을 '정관 제8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4년마다 개최해온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간호정책 선포식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대회(제6장 제57조) 조항을 삭제했다.

대의원총회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전 11시10분에 폐회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